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골절

논문제목 경골 고평부 관절 함몰을 동반한 외과 골절 및 양과 골절에서 후 외측
관절 함몰의 위험 인자 분석

영문제목 **Analysis of Risk Factors for the Posterolateral Joint
Depression in Lateral Condyle with joint depression and
Bicondylar Tibia plateau Fracture**

발 표 자 성민규 책임저자 안종국

저 자 최정윤,성민규,안종국

기 관 명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

서론 : 본 연구는 경골 고평부 관절 함몰을 동반한 외과 골절 및 양과 골절에서 후 외측 관절 함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후 외측 골편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본 연구는 경골 고평부 관절 함몰을 동반한 외과 골절 및 양과 골절에서 후 외측 관절 함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후 외측 골편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결과 : 대상 환자 중 비골 골절은 21예 44%에서 발생하였고, 비골 골절이 있을 경우 모든 예에서 후 외측 골편이 존재하였다. 비골 골절의 여부에 따른 후 외측 관절 함몰 발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($p<0.001$), 비골 골절이 있을 때 후 외측 관절 함몰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($p<0.001$). Schatzker type V의 93%에서 후 외측 골편이 발생하였다. Schatzker 분류에 따라 후 외측 골편 발생과 후 외측 관절 함몰 발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($p=0.039$, $p=0.019$). 후 외측 골편이 동반되었을 때 후 외측 관절 함몰발생에 차이가 있으며($p<0.001$)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($p<0.001$). 후 외측 골편은 34예 71%에서 존재 하였다. 후 외측 골편의 외측 전방 골절선은 비골두 전연을 기준으로 평균 $-2.8\pm13.1\text{mm}$ 에 있었고, 44%에서 전방 57%에서 후방에 존재하였다. 후 외측 골편의 전후방 크기는 $16.5\pm9.9\text{mm}$ 였다.

결론 : 비골 골절이 동반될 때 후 외측 골편이 동반 되고, 후 외측 관절 함몰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. 또한 schatzker 분류 II형에 비해 V형에서 후 외측 골편 발생과 후 외측 관절 함몰이 의미 있게 많이 발생하였다. 이러한 후 외측 골편은 후 외측 관절 함몰을 동반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비골두 전연을 기준으로 비교적 후방에 존재하여 골절 정복, 관절면 복원, 고정물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.

acknowledgment :

경골 고평부 골절, 비골 골절, 후 외측 골편, Schatzker 분류
